

## ◆ 13년 11월 고1 19~21번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분야에서 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이라고 정의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기는 끊임없이 확장(상승)과 수축(하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경기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경기가 하강하다가 저점에 이르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데 이를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들은 경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경기가 좋고 나쁜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경기의 판별에는 국내총생산(GDP)이라는 경제지표가 주로 쓰인다. GDP는 일정 기간에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총액인데, 1년이나 분기 단위로 측정된다. GDP성장률을 기준으로 경기를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㉞ '경기순환'에 의한 판독법이 있다. 이는 GDP성장률이 양(+)을 기록하면 경기의 확장기, 음(-)을 기록하면 수축기로 본다. 이에 따르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한 경기는 항상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므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둘째, ㉞ '성장순환'에 의한 판독법이 있다. 이는 GDP성장률이 장기성장추세\*보다 크면 확장기로, 작으면 수축기로 본다. 예를 들어 자체 역량으로 성장 가능한 수준이 4%인 상황에서 6% 성장했다면 경기가 좋다고 보고, 2% 성장했다면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순환'은 그 시기 경기의 대략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성장률이 장기성장추세보다 높다 하더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완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것이 ㉞ '성장률순환' 판독법이다. '성장률순환'은 GDP성장률의 수치 자체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본다. 즉 성장률이 커지고 있다면 확장기로, 작아지고 있다면 수축기로 본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6%→5.5%→4.5%→3.8%로 낮아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같은 흐름을 보면 경기가 수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성장률순환'에 의하면 경기의 변화 양상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요컨대 '성장순환'에 의한 판독법은 경기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제공해 주고 '성장률순환' 판독법은 경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므로, 경기변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상호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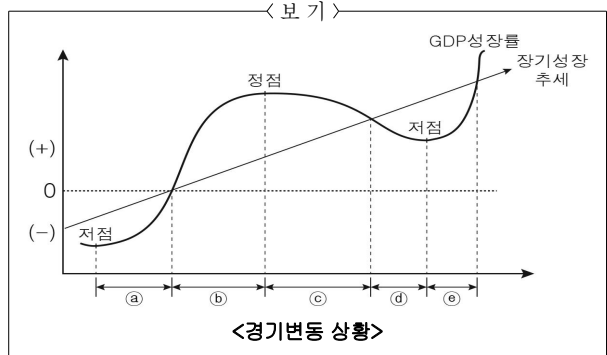
그러면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에 각 경제주체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반적으로, 확장기에는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여 실적이 좋아지면서 고용이 확대되고 임금이 상승하므로 기업의 이윤과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기업과 가계도 투자와 소비를 늘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경기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물가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펴게 된다. 반면 수축기에는 투자, 생산, 소득이 모두 위축되므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달라지게 된다.

\* 장기성장추세: 경제가 자체 역량으로 규모를 키우는 수준의 성장률.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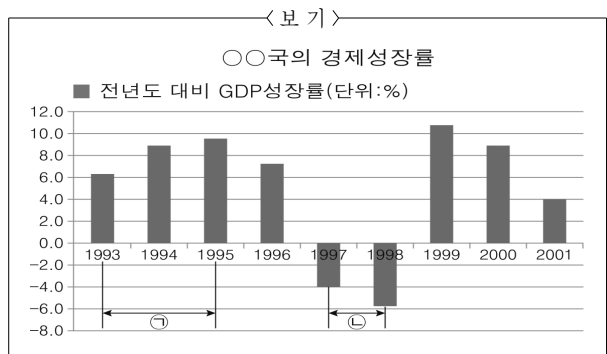
- ①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 ② 경기의 판별에는 국내총생산이라는 경제지표가 주로 쓰인다.
- ③ '경기순환'에 의한 판독법은 장기성장추세와 GDP성장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 ④ '성장순환'에 의한 판독법과 '성장률순환' 판독법을 상호 보완하여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⑤ 1년이나 분기 단위로 측정되는 GDP는 그 기간에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총액이다.

20. ㉞ ~ ㉞의 관점에서 <보기>의 ㉞ ~ ㉞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㉞의 관점에서는 수축기로, ㉞의 관점에서는 확장기로 보겠군.
- ② b: ㉞와 ㉞의 관점에서 모두 확장기로 보겠군.
- ③ c: ㉞의 관점에서는 확장기로, ㉞의 관점에서는 수축기로 보겠군.
- ④ d: ㉞와 ㉞의 관점에서 모두 수축기로 보겠군.
- ⑤ e: ㉞와 ㉞의 관점에서 모두 수축기로 보겠군.

21. [A]를 바탕으로 ㉞과 ㉞에 각 경제주체들에게 나타났을 경제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㉞과 달리 ㉞의 시기에 기업의 생산은 증가했겠군.
- ② ㉞과 달리 ㉞의 시기에 가계의 소비는 증가했겠군.
- ③ ㉞과 달리 ㉞의 시기에 정부는 물가 상승의 조짐을 우려했겠군.
- ④ ㉞과 달리 ㉞의 시기에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했겠군.
- ⑤ ㉞과 달리 ㉞의 시기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시행했겠군.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경기종합지수라고 한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러한 공식적 경기지표들과 체감경기는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공식적 경기지표들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체감경기는 수많은 경제지표 중에서 소비지출, 특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 설비투자에 대한 지출, 고용상태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는 가계수입의 변화나 내구 소비재를 구매하는 여유로 경기변화를 체감한다. 기업은 급격히 증감하는 주문이나 이로 인한 투자 계획 변동과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 경기 변동을 체감한다.

체감경기와 경기지표가 차이가 나고 경기회복 시에 체감경기가 경기지표보다 늦은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체감경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국민생산의 변동을 뒤따라가는 경기 후행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내구재를 비롯한 소비지출을 통해 체감경기를 느낀다. 소비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뒤, 가계소득이 가까운 장래에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야 비로소 경기회복을 인정하면서 내구재를 구입한다. 기업의 고용변화도 본질적으로 경기 후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에도 고용을 줄이는 결정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또한 경기가 어지간히 회복되어도 고용을 좀처럼 늘리지 않기도 한다.

둘째,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실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특수상황에서는 체감경기 회복이 보통 때보다 더 늦어진다. 그러한 국면에서는 경기지표만 보고 설비투자 증가계획을 세우는 기업은 드물다. 또한 ㉠ 실직한 가장이 있는 가계에서 경기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보도만으로 내구재 소비를 늘릴 리는 만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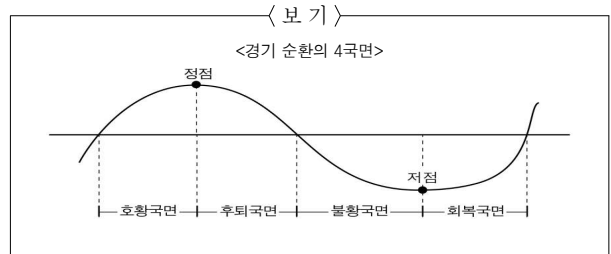
셋째, 통계치와 지표의 해석 차이 때문이다. 보통 지표경기의 회복세를 진단할 때 경기종합지수를 인용하는 경우 실제 상황보다 수개월 경과한 뒤에 이 지표가 집계되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지표가 지난달과 이번 달, 지난해와 이번 해를 비교한 증감률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표의 수치는 현재 수준보다는 동향의 방향이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올랐다'가 아니라 '하강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식의 진단이 자칫 경기회복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 경기 동향이나 지표는 상승하고 있어도 개인이나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3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념의 오류를 반박하며 새로운 논의를 전개한다.
- ② 통시적 고찰을 통해 논의 대상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 ③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비교하여 공통된 특질을 보여준다.
- ④ 현상에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 ⑤ 제기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제시한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정점을 지나면서 경기지표가 하락하면 기업은 고용을 시급히 줄이는 결정을 할 것이다.
- ② 불황국면이라도 경기지표가 상승하면 소비자의 체감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 ③ 경기가 저점을 지나면 경기지표보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 ④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회복국면에서 경기지표가 상승하면 기업은 설비투자계획을 세울 것이다.
- ⑤ 회복 국면에 경기지표가 상승하여도 소비자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야 내구재를 구입할 것이다.

32.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높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온 기린은 환경에 적응해서 목이 길어진다.
- ② 한번 늘어난 스타킹은 신축성이 약해져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힘들다.
- ③ 옆의 전동차가 움직이면 자신이 타고 있는 정지된 전동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한다.
- ④ 고속도로에서 큰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소형차가 일시적으로 기우뚱거린다.
- 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 아랫목이 따뜻해지기 시작해도 방 안의 온기를 느끼려면 시간이 걸린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기 변동은 실질 GDP\*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여 주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그 선을 이탈하여 상승과 하락을 보여 주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㉔ 일어나는 주원인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였다. 합리적 기대란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루카스는 ㉕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에서는 아무리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해도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화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경기 역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서 찾게 되었는데, 이를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고용량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해외 부문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경기 변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그에 따라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실질 GDP: 물가 변동에 의한 생산액의 증감분을 제거한 GDP.

\* 총수요: 국민 경제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의 합.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기 변동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경기 변동의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다.
- ③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경기 변동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주체들의 생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 ②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④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비판한다.
- ⑤ 경제적 협력이 밀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의 경기 변동이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22. ㉕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루카스가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의 사례는 금융 당국의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A] 할 것입니다.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 ①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와는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 ②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려
- ③ 근로자의 임금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늘리려
- ④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 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23. ㉔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얼마 후에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② 그녀는 싸움이 일어난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떠났다.
- ③ 그는 친구의 말에 화가 일어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 ④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동아리의 위기를 해결하였다.
- ⑤ 체육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승리에 대한 열기가 다시 일어났다.

◆ 10-9평 31~32번

[31~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발달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재산권 제도가 발달하면 투자나 혁신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의 발달 수준과 소득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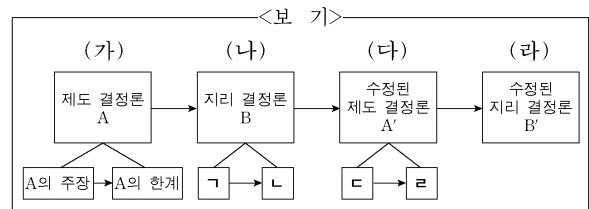
(나) 그런데 최근에 각국의 소득 수준이 위도나 기후 등의 지리적 조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통계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제도와 달리 지리적 조건은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리적 조건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산성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다) 제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지리적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가 예나 지금이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지리적 조건과 소득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러한 '소득 수준의 역전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려면, 제도가 경제 성장의 직접적

인 원인이고 지리적 조건은 제도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리적 조건은 지금의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리적 조건은 과거에 더 잘살던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에 불리한 방향으로, 더 못살던 지역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발달하게 된 '제도의 역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라) 이제 지리적 조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간접적인 경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로가 경제 성장에서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31. <보기>는 위 글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ㄱ~ㄴ에 해당하는 것은? [3점]



	ㄱ	ㄴ	ㄷ	ㄹ
①	B의 주장	B의 한계	A'의 증거	A'의 주장
②	B의 주장	B의 한계	B에 대한 반증	A'의 주장
③	B의 증거	B의 주장	B에 대한 반증	A'의 주장
④	B의 증거	B의 주장	A'의 주장	B에 대한 반증
⑤	B의 한계	B의 주장	A'의 주장	A'에 대한 반증

32. (가)~(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대체로 기온이 높은 나라일수록 질병 등의 문제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생산성도 낮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1인당 소득 수준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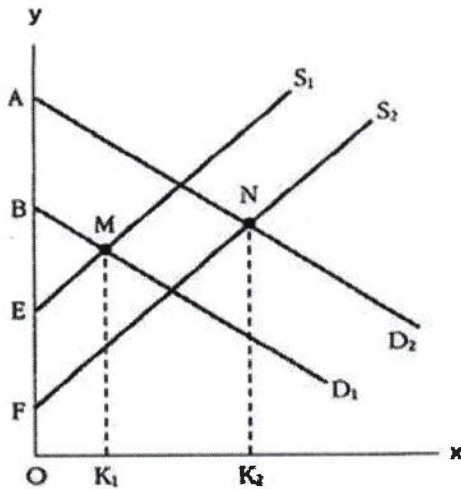
ㄴ.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재산권 제도가 발달하였지만, 스페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제도가 이식된 중남미 국가들이 영국의 제도가 이식된 북미 국가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

ㄷ. 기후가 사탕수수 등의 상업성 작물에 적합한 지역에서는 노예 노동을 이용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와 정치 참여 면에서 불평등한 제도가 정착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자본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림>

인간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베커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수요곡선일 때는 ‘한계수익’을, 공급곡선일 때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비용은 투자 기회에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수요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하는데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2는 D1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이며 S2는 S1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D2의 값 A가 D1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의 S2의 값 F가 S1의 값 E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에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때,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랫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1의 수요곡선과 S1의 공급곡선을 가진다면 K1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OBMK1, 총비용은 OEMK1이므로 순이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은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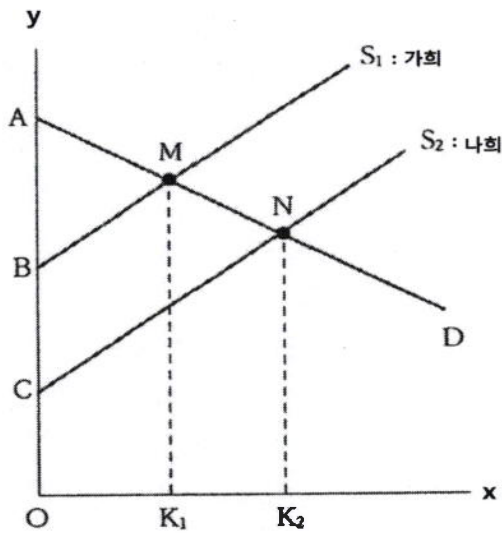
①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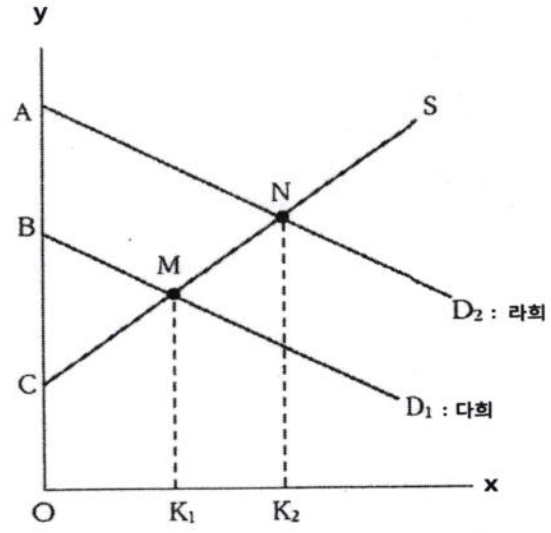
- ①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
- ② 투자에 의해 형성되고 체화된 인간의 지식은 인간자본에 해당한다.
- ③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 ④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형성을 위해 포기한 소득을 배제하고 투자를 정의한다.
- ⑤ 베커는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윗글과 <보기>를 토대로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가)



(나)

단, 수요곡선인 D와 공급곡선인 S는 개인의 능력과 투자 기회의 차이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OAMK<sub>1</sub>은 '가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이다.
- ② (가)에서 OCNK<sub>2</sub>은 '나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비용이다.
- ③ (나)에서 BCM은 '다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순이익이다.
- ④ (나)에서 OK<sub>1</sub>은 '라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다.
- ⑤ (나)에서 ABMN은 '다회'와 '라회'의 소득 격차이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회'가 '나회'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회'의 능력이 '나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② '가회'는 '나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③ '가회'와 '나회'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
- ④ '다회'와 '라회'는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
- ⑤ '라회'는 '다회'에 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24. <보기>를 근거로 하여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인도에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다. 하위 계급 노동자가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자본이 충분한 노동자라고 해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교육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노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 정답: 21.④ 22.④ 23.③ 24.④

## ◆ 25 LEET 언어이해 16~18번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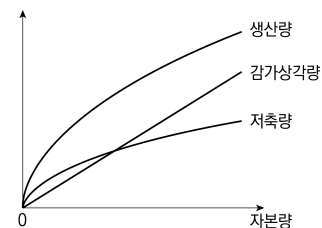
한 사회의 소비나 인프라 수준은 생산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장기적인 변동으로 정의되는 경제성장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은 저축과 인구의 변동, 기술의 진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성장모형이다. 인구와 기술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y$ )은 자본량( $k$ )의 증가 함수이다. 단,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늘어나는 정도는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한다. 자본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생산은 소비( $c$ )나 자본재 구입을 위한 투자( $i$ )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량 = 소비량 + 투자량’의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

생산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 일치한다. 저축률( $s$ )은 저축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이다. 감가상각은 자본 사용 정도에 비례하여 자본재의 일부가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량은 자본량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인 감가상각률( $d$ )의 곱으로 결정된다. 생산량을 비롯하여 저축량, 감가상각량, 투자량 등은 총량을 고정된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개념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에 따르면 자본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Delta k = i - dk$$

여기서  $\Delta$ 는 경제 변수가 전기 대비 변동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 식은 자본량의 변동 방향을 결정하는 두 요인을 설명하는데, 신규 투자는 자본량을 늘리는 반면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저축량, 감가상각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본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인 ‘정태상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본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산량의 변동도 없고 저축과 소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태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태상태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만약 투자량이 감가상각량을 상회하고 있다면 <식>에 의해 자본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인 투자도 증가한다. 또한 자본량의 일정 비율인 감가상각량도 늘어난다. 다만, 감가상각량의 증가 속도는 자본량의 변화 속도와 언제나 같은 반면 투자량의 증가 속도는 차츰 감소하는데, 이는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로 결국 어느 시점에 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같아지면서 경제가 정태상태에 도달



하게 되며, 이후에 다른 외생적인 변화가 없다면 경제는 이 정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경제가 도달하는 정태상태 자본량은 각 경제의 기초여건인 저축률 및 감가상각률 수준과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A]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소비가 최대가 되는 정태상태 자본량 수준을 최선의 자본량이라는 의미에서 황금을 자본량이라고 부른다. 생산함수와 감가상각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축률 변동을 통해 경제가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거나 또는 황금률에 보다 가까운 수준의 자본량을 보유하도록 경제상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태상태에 있는 어느 경제의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자.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는 저축률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즉각 줄어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와 자본량 증대가 생산 수준을 점차 더 높게 된다. 따라서 생산의 일정 비율인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 변경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새로운 정태상태에서 미래 세대는 정책 변경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누릴 수 있으므로 효용이 증가한다. 반면 현재 세대, 특히 기대 잔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미래 시점에서의 소비 증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소비 감소로 인한 효용 감소는 분명하므로 청년층에 비해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16.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함수는 정태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투자와 감가상각이 다르다면 자본량은 변동한다.
- ③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 ④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
- ⑤ 자본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생산 증가의 폭은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17. 밑줄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축률을 비롯한 기초여건은 동일하지만 초기 생산량이 다른 두 국가 경제는 소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 ② 저축률을 변경시키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는 세대 간 기대 잔여 수명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 ③ <그림>에 의하면 자본 마모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는 자본량은 작아진다.
- ④ <그림>에 의하면 저축률의 상승은 투자량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는 자본량을 확대시킨다.
- ⑤ 황금률 자본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의 생산량은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변동하지 않는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의 X국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재 X국에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며,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주목한 정부는 황금률 자본량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단, 다른 조건의 변동은 없다.)

- ① 정책 시행 이후 현재 세대 중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의 효용 수준은 높아진다.
- ② 정책 시행 이후 새로운 정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는 점차 증가한다.
- ③ 미래 세대의 효용 수준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아진다.
- ④ 감가상각률은 정책 시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 ⑤ 자본량은 정책 시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한다.